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인 학교에서 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학교들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간다. 특히 최근 1~2년 새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교사가 아닌 전문가가 상주하며 학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의 실무자 대다수가 사회복지사들이며 성과가 알려지면서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청 장학사나 학부형,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사회복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사회복지가 주목을 받다보니 학교사회복지에 대해 과열된 관심과 오해도 있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우선 10개월 ~ 12개월이라는 저임금 일용계약직의 불안정한 신분이 주는 많은 한계와 불편은 제쳐두자.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능력의 문제이다.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으레 아이들과 상담하고 집단프로그램하고 가끔 교사나 학부모와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일들을 분석해보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과 거기에 드는 에너지는 약 1/5정도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전체의 복지여건

## 학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04~2005년까지 2년간 도봉중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처음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임용되었을 때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다. 요즘 인터넷 스팸메일 중 가장 많은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거저 따게 해드린다는 제목인데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들어와서 무슨 전문적 활동을 하며 교사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아이들을 맡겠다고 하느냐부터 교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6개월 이상 활동하고 나면 이런 불신이 대부분 사라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서 지금은 시범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모습들을 본다.

을 사정하여 장기적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면서 실행하고 관리, 평가하는 일이다. 즉,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보다도 교사와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학부모와 상담하고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나 공무원들과 만나는 그런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개입기술 뿐 아니라 학교체제와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조직생활에 대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개입기술 뿐 아니라 학교체제와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여러 정책에 대한 지식, 협상기술, 복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행정기술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

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여러 정책에 대한 지식, 협상기술, 복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행정기술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사정기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입기술이다. 여기에는 학생 뿐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체계로서 교사와 학부모를 이해하고 이들을 변화시키거나 파트너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있어서도 빈곤학생대상 장학금이나 가정지원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과 학생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원으로 참여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이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불쌍해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학교에 취직하면 방학 때 쉬고 선생님 대우를 받으니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과 내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개입과정에서 보

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생의 문제를 개인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문제의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며 사회정의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복지와 인권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능력들은 꼭 학교사회복지 현장에서만 필요한 독특한 능력들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든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이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할 곳이 일반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교사라는 전문직만이 근무하는 학교이기에 더욱 더 우리의 전문성과 능력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능력있는 학교사회복지사, 학교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전문자가 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연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현장 속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듭 되새길 점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가 봉사할 학생과 가족들에게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도서소개

### 기업과 NGO의 전략적 제휴 (NGO용 지침서)



글 : Dr. Richard Steckel & Jack Boyson

번역 : 임정섭

감수 : 정무성

출판사 : 아이들과 미래

금액 : -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정부간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상호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 정부는 공공재만 전담 공급했으며, NGO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소외계층 사업에 몰두해왔고, 기업은 사회적 욕구보다는 자사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해왔다. 현재 추세는 이들 세 영역간 활동 범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부터 사회적 요구충족을 위해서는 세 영역간 상호보완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책에서는 NGO의 재정확대와 프로그램 강화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 및 타분야와의 다양한 제휴관계를 맺는 도구와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 실버산업론



저자 : 현외성의

출판사 : 학현사

금액 : 16,000원

실버산업이란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며, 노후생활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적증가 등의 요인들에 의해 등장된 것이며, 이러한 노인수요 증가 및 가족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경제력 강화,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영화 등의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따른 실버산업 정책 및 실버산업 마케팅, 여가산업등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